

오스트레일리아에 영생학 소개되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뒷줄 왼쪽 4번째에 한강현 국제신인류학회 부회장, 가운데 마시모에 교수, 뒷줄 오른쪽 4번째 안준영 승사 ANU Hedley Bull Building(#130) 건물 내부

2018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호주(Australia)의 수도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국립대학(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주최 국제학술대회 “2018 아시아 종교 컨퍼런스 Asian Religion Conference”가 열렸다.

호주국립대학 아시아 태평양 학과 마이클 웨슬리 학장(Michael Wesley)의 초청으로 17개국에서 참가한 종교 연구 전문가를 비롯하여 각 교단의 일반참가자, 그리고 호주의 유명 대학 종교학자 및 현지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90명이 참가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ANU 종교 컨퍼런스는 ‘성지 및 성지 이야기: 글로벌 관점 Sacred Sites/Sacred Stories: Global Perspectives’라는 주제 아래 5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순례와 관광, 역사적 전망, 예술과 건축, 민속 전통, 경쟁과 논쟁 5개 파트 아래 17개 분과세션에서 각각 열렸다.

에이린 바커(Eileen Barker) 런던이코노믹 칼리지 교수와 엘리자베스 민친(Elizabeth Minchin) 호주국립대학 교수의 기조연설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은 자기가 연구해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종교현상들을 발표하게 되었고 열띤 토론을 통해 각자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며 서로의 연구성과 등을 공

유하는 학술 대회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의 성지 소개

한강현(국제신인류문화학회 부회장) 한국신종교연구자는 제일 먼저 관광에 대한 참 의미를 설명한 후 미래관광과 순례지가 될 지성소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논문을 여러 프리젠테이션 사진을 통해 설명했다.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신종교운동의 역사 속에는 성스러운 수많은 이야기가 한반도에는 전국 각지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은 전 국토 팔도강산이 성지가 아닌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천지개벽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주도했고 주목할 만한 하늘의 사명자로서 동학 최제우 수운천사의 시작으로 화은 강증산천사, 목운 박태선천사, 그리고 금운으로 이어지는 4천사의 개벽장 출현을 소개하고 이것이 관한 예언이 <격암유록> 가사총론에 기록되어 있음을 먼저 밝혀주었다.

밀실과 승리제단, 오만제단

그 후에 대주제인 성지와 성령의 역사 측면에서 마지막 개벽장이 출현한 승리제단의 ‘밀실’과 지성소가 되는 ‘승리제단’, 그리고 목운 박태선장로가 활동했던 소사신앙촌과 ‘오만제단’이 ‘천부교’의 성지임을 소개했다. 소

사신앙촌과 오만제단이 건설된 시기와 ‘이슬성신’의 유래를 ‘노고산(老姑山) 일명, ‘노구산(露求山) 지명과 박태선천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이어서 격암유록에 예언된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에 위치한 ‘밀실’ 성지에서 출현한 ‘이긴자’에 대한 소개와 각 경전에서 예언하고 있는 ‘감로해인’이 되는 이슬성신의 현현(顯現)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현재 ‘승리제단’에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내리고 있는 성령강림현상들을 성화사진을 통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니 모두가 놀라는 눈빛이었다.

승리제단 최고의 성지될 것

앞으로 세계만민들의 순례지가 될 성지와 지성소는 ‘이슬성령’이 임하는 곳이라야 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인 ‘감로해인(甘露海印)’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정도령이요 이긴자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감로수 광명의 성령이 임하는 곳으로 세계 시민들의 성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미래관광의 새로운 참 의미와 역할을 “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고, 현재 승리제단에서 부르고 있는 “오라 성령의 빛을 향해”라는 새 찬송가를 해설하면서 논문발표를 마쳤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성지와 성령의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감지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이기신 하나님의 얼굴이 인쇄된 승리제단 안내 영문책자가 펼쳐졌고 지성소, ‘승리제단’에 관한 연구논문자료 프린트물이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논문발표 후 엘리자베스(Elizabeth Underwood)라는 여대생은 이슬성신을 처음 봤으며 성령강림사진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한강현 부회장은 모든 인류가 고대하던 승리한 하나님의 증표인 ‘이슬성신’에 대해 세밀히 소개하며 더 많은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스티브의 역할 돋보여

뉴질랜드에서 참가한 연구자 스티브(Steve S)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있었던 승리제단의 진리와 미래 관광의 참 의미를 능숙하게 쉬운 영어로 잘 설명해 주어 큰 역할을 하였다. 예외바른 태도, 단아한 음성,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존경하는 자세는 너무도 보기 좋았다.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소개하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학술 문화가 서로를 편하게 했다. 고급진도가 따로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직접 만나본 승리제단의 사람, 의인들이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냐고 논문발표자 한강현선생은 운을 떼며 거들어주었다. 스티브씨와 함께 정말 그렇다고 본 기자는 화답을 했다.

7월 12시 경에 모든 발표를 끝내고 점심식사 후 자유로운 짧은 답사여행이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동참했다. 먼저 사람이 훨씬 내다보이며 캔버라 시내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블랙마운틴 타워를 올라가서 ANU 캠퍼스와 시내 전체를 관망하였다.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전쟁기념관과 국회의사당을 탐방하고 캥거루가 뛰어노는 서식지, 웨스턴 공원(Weston Park)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시간을 잠시 가졌다. 호주에서 3%정도의 엘리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ANU 대학캠퍼스 다시 귀환했던 것을 끝으로 모든 일정과 국제 학술대회 참관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승리제단의 비전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기자는 이번 학술대회 참가가 상당히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시드니에서 안준영 승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32)
“항상 희생적으로 생활해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여야 한다. 가정이나 직장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이지아, 저 사람이 나가는 곳이 승리제단이라지?” 하고서 전도를 안 했는데도 고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이와 같이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놀라

운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랜 시간동안 계속 그렇게 움직일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다. 마귀를 이기는 길, 나를 이기는 길은 항상 희생적으로 생활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전체를 기를일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인내천의, 인내천에 의한, 인내천을 위한 건강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통일대한민국

북한이 핵실험·ICBM(대륙간탄도 미사일)발사 중지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주변국·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대화 의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은 “세계적인 정치사상·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단계에서 전당·전국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끝내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게 우리 당(노동당)의 전략노선”이라고 천명했다.

인류역사는 당대 최고라는 자존심으로 무장된 정치적 사상과 이념, 종교적 교리와 교파의 잔인한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무고한 인명이 살상된 혁명과 전쟁의 연속이었다. 통일의 열기와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피부에 닿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과연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과 생활 방식은 어떠할까? 많은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과 삶을 기반으로 통일을 예측하면서 통일대한민국이 자신들에게 안겨줄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자신의 종교나 직장, 각종 사회제도나 존재의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인간들이여, 꿈에서 깨어나라! 완성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기자는 이번 학술대회 참가가 상당히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승리제단의 비전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기자는 이번 학술대회 참가가 상당히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작이다. 인간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한 이들에겐 억울하고, 허탈하고, 아깝고, 침통한 통일일 뿐이다.

1920년대 혁명의 나라 쿠바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며 한국어학교와 천도교 종리원을 세우고 천도교식 성미방식으로 독립자금을 모금하여 상해임시정부에 전달한 임천택은, 혁명정부를 수립하여 제반 계급차별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인간주의 실천을 표방한 카스트로 정부를 지지하면서 “우리 민족의 복리는 인내천주의 실현에 달렸다”고 했다.

비록 언어적으로 유사한 쿠바의 인간주의와 한국의 인내천주의지만 상대적·분열적 속성의 시발점인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서는 민족의 복리를 선물할 인내천주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통일을 이루는 절대적인 정도의 가르침은 하나다. “사람의 ‘나’라는 의식이 죽음의 신, 분열의 영 마귀다. 나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나가 되고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섬기고, 내 몸처럼 여기는 생활을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건강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통일대한민국의 백성인 극기승자로 완성된다.”

통일은 인간의 본질을 아는, 먼저 인간의 속성을 이겨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인간의 속성을 벗어나 불사영생의 ‘건강함’과 누구든지 내 몸처럼 내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겸손함’으로 완성되는 ‘더불어 인류가 하나되는 운동’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종교입니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 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인곡로 209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